

2024 Vol.21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www.uispc.org



C O N T E N T S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 Vol.21 뉴스레터

발행일 | 2024. 10. 21.

발행인 |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생물관 106호

TEL. 051)510-7905 FAX. 051)510-1118

E-mail. uispc@pusan.ac.kr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 04 소규모 대학과 전공자유선택제, Decoupling!!!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_ 권경만

성과사례

- 08 신입생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를 위한 가톨릭대 특화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취·창업지원팀 팀장_ 원천우
- 12 경동대학교, 진로탐색학점제로 학생들의 미래 설계 지원
경동대학교 취업복지처 주임_ 김민주
- 16 자기주도 체험학습으로 전공과 진로에 더 가까이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부교수_ 박지현
- 20 인공지능 시대 : 에듀테크로 수업을 혁신하다
동서대학교 원격교육센터 연구원_ 이윤희
- 24 글로벌 마케터 심화과정 우수 수료생, 홍콩 식품 박람회 참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교육센터 오채영 차장/강윤경 과장
- 28 2024학년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활성화 성과공유 포럼
인천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_ 김수영
- 32 학과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학과주도형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 및 예산 향상
조선대학교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 직원_ 김도희
- 34 도서관 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 통합형
‘스마트 도서관통합시스템’ 구축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계장_ 박지은
- 38 ‘KBU 임팩트 봉사단’ 해외봉사 프로그램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 직원_ 지수빈



학생사례

- 42 KNU 창업사관학교 입교와 ANUWAVE로 창업하다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3학년_ 김나현
- 46 알파 프로젝트 : 교내 교직원을 위한 근골격계 운동캠프 및 효과 검증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학생_ 박효원
- 50 혁신의 '大'로를 걷다 : 나의 대학혁신 이야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어전공) 졸업생_ 오정은
- 54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
삼육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 학생_ 임희연
- 58 송원대학교 성인학습자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봉사역량강화
송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_ 박현균
- 60 송원대학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_ 이진희
- 62 RC융합대학: 2024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며
베리타스하우스 RA를 인터뷰하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국제관계학전공 재학생_ 김단영
- 66 INNO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경험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INNO모니터링단 학생_ 김다혜
- 70 글로벌 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경험
(인도네시아 해외연수의 교훈)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학생_ 서영서
- 74 돌아온 학교에서 만난 보석 같은 순간: 비교과프로그램이 선물한 추억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서아프리카어전공 학생_ 황인준

소규모 대학과 전공자율선택제, Decoupling!!!



권경만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기관의 조직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정책들은 설립유형, 지역, 재학생수, 재정규모 뿐만 아니라 학부중심, 연구중심, 산학협력중심 등의 발전전략을 간과한 채 설계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고등교육 단계도 대중화를 넘어 보편화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되었고, 고등교육에서 80%가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대학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1990년대 이후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2000년대 이후 대학은 국제적 경쟁이라는 환경에서 책무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은 대학으로 하여금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평가에서 고도의 전략적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대학은 고등교육 분야 가운데 사회적 정당성을 얻은 대표적인 조직의 구조나 형식 등을 모방 또는 순응하면서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신제도주의 이론에서는 ‘제도적 동형화’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조직은 교육부의 정책적 압력에 직면할 때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기존 관행이나 방법을 고수하면서 형식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디커플링(decoupling)’이라고 부른다.

2024년 상반기 교육부 정책 중 가장 화두는 ‘전공자율선택제’일 것이다. 전공자율선택제가 최근 급부상하며 논란의 중심이 된 이유는 교육부가 2024년 1월에 발표한 무전공 확대 정책 발표 때문이다. 전공자율선택제의 목적은 사회적 인력수요에 탄력적인 대처를 위해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혁신성과 가산점 제도로 ‘유형1’과 ‘유형2’의 전공자율선택제를 제한한 바 있다. ‘유형1’은 무전공제로도 불리는데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 예체능 계열 제외)을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고 ‘유형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해당 범위내에서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그림 참조)

전공자유선택제의

목적은 사회적 인력수요에

탄력적인 대처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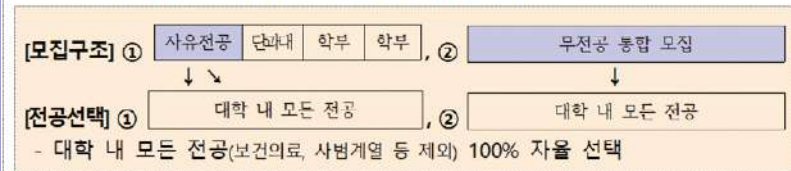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 인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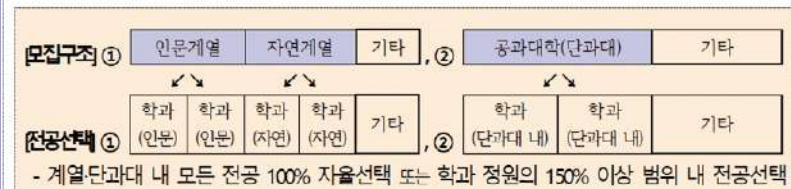
양성하는데 있다.

(유형1)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예: 자유전공학부 등)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자율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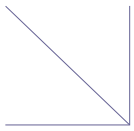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

- * 계열·단과대 내 전공·학과를 일부 분리모집하는 경우도 인정
- 다만, 혁신성·직질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에서 반영 가능



이러한 정책방향에 직면한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전공자유선택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사한 대학 총장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설문에 응답한 135개 대학 중 현재 ‘모든 전공에 대해 구분 없이 모집(무전공)’하는 대학은 28개교(20.7%),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자유전공)’하는 대학은 33개교(24.5%)이며, 운영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74개교(54.8%)로 나타났고, 향후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61개교 중 47개교(77%)는 ‘확대 예정’이며, 현재 운영하지 않는 74개교 중 57개교(77%)는 ‘도입 예정’으로 응답하였다. 대학현장에서 ‘모집단위 자유전공·무전공’ 도입 및 확대 정책

소규모 대학과 전공자유선택제, Decoupling!!!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학문편중, 전공쏠림 현상’,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모집단위 자유전공·무전공 도입·확대를 위해서는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라 도입·운영의 자율성과 개선책 마련 필요’가 제시된 바 있다.

소규모 대학 중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성서대의 경우 이번 혁신사업 성과평가에서 제한적인 학사구조의 한계로 ‘유형1’은 원천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했고, 나름 야심차게 ‘유형2’에 해당하는 AI융합학부 신설을 추진하였는데 입학정원 조정을 합의하는 과정 내내 학과 간 반발과 갈등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여곡절 끝에 ‘유형2’에 대한 가점 8점을 획득하여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작년보다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권역별 보정상수가 적용된 결과 사업비는 작년보다 감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앞선 여러 기고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84개 대학을 4천명 단위로 구분해 봤을 때 대규모 77개교(41.8%), 중규모 44개교(23.9%), 소규모 대학 63개교(34.2%)로 소규모 대학이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63개 소규모 대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계열 대학은 37개교, 예체능 계열 대학은 6개교 68.3%의 대학이 일반적인 대학과는 차별되는 특수목적¹⁾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소규모 대학 63개교 중 종교계열 대학 37개교의 학사조직(2023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29년째 무전공제를 이어온 한동대가 독보적으로 존재하지만 반면 5개 이하의 학과나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무려 21개교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규모 대학에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전공자유선택제를 이식(移植)하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학 구성원 간의 내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임에 분명하다.

뉴스1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 전환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 대학’을 주제로 주최한 ‘제 1회 대학혁신포럼(2024.5.23.)’에서 변기용 교수(고려대)는 현재 고등교육체제의 문제점으로 재정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립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꼽았다. 필자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정책연구진과의 간담회(2023.9)에서도 소규모 대학의 유형에 맞는 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당시 연구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유형별로 적합한 평가모형을 만든다면 50개 이상은

1) • 조사목적: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교육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고 정책 건의 등에 활용
• 조사기간: 2024년 1월 10일(수) ~ 1월 22일(월)
• 조사방법: 전자공문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률: 회원대학 190개교 중 135개교 응답(71.1%)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규모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책적 고려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정책이란 가장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등교육정책의 성공은 대학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발전적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의 교육혁신을 이룩함에 있어 전공자율선택제가 아무리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라 할지라도 강제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decoupling)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때때로 단기간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학 스스로 창조적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음을 정부(교육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대학은 충분히 스스로 생존(生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학년 1학기 전공탐색 중심의 <I-DESIGN> 학기, 1학년 2학기 진로설계 중심의 <Career DESIGN> 학기로 구성되어 2024학년도에 전면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가톨릭대학교 취·창업 지원팀에서는 신입생들의 전공탐색과 진로설계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1학기에는 <나를찾는학기 Festival>을 운영하였으며, 2학기에는 <Career Master Class>를 운영할 예정이다.

1학기
I-DESIGN
학기

I-Design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나를찾는학기 Festival>

<나를찾는학기 Festival>은 신입생의 기초소양 함양과 전공탐색을 위해 설계된 <I-DESIGN> 교과와 연계되어 실시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교내 김수환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나를찾는학기 Festival>에는 모두 34개 학과, 26개 대학원, 6개 행정부서가 참여하여 신입생들의 전공탐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 나를찾는학기 Festival 행사 사진



▲ 나를찾는학기 Festival 행사 사진

▲ 학과 교원들이 직접 부스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전공 설계를 도와주는 학과 상담 Zone, ▲ 신입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안내해주는 행정부서 상담 Zone, ▲ 대외활동, 계열별 진로취업, 해외취업 등의 상담을 진행한 진로취업 컨설팅 Zone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번 <나를찾는학기 Festival>에는 연 인원 2,87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김재현(1학년) 학생은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과의 전공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 외에도 진로와 취업 상담, 현장실습 등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직접 상담할 수 있어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학기
Career DESIGN
학기

Career Design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Career Master Class>

<Career Master Class>는 <DESIGNer 학년제>의 2학기 핵심 교과인 <Career DESIGN> 교과와 연계되어 올해 2학기에 신설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 취업준비(대기업/외국계/공기관 별), ▲ 창업(창업 아이디어 실현방법), ▲ 직무(마케팅, 개발자, 연구개발 등 9개 대표 직무), ▲ 산업(인공지능, 반도체, 2차전지, 엔터테인먼트 등 7개 주요 산업군), ▲ 기업소개(6개 주요 기업) 등의 영역에서 취업전문가 또는 기업 현직자를 초청하여 5일간 26개 특강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진로분야에 따라 특강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가톨릭대학교의 신입생 진로특화 <DESIGNer 학년제>는 교과와 비교과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생들의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전공·학과 및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학교의 전반적인 학습지원 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추후 신설 교과 및 비교과의 성과 평가를 통해 환류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지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경동대학교, 진로탐색학점제로 학생들의 미래 설계 지원



김민주

경동대학교
취업복지처
주임

경동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도전 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학점을 인정받는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운영목표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설계 지원

경동대학교의 진로탐색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학습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며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능력과 진로 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론적 학습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 2022년 진로탐색학점제 성과발표회(시범운영)

▮ 운영내용

다양한 학과와 프로젝트를 통한 맞춤형 학습 경험 제공

진로탐색학점제는 2022년 동계방학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항공서비스학과와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하계와 동계 계절학기에는 컴퓨터공학과, 유아교육과, 스포츠마케팅학과 학생들이 추가로 참여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AI 활용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실습을 통해 교육적 역량을 강화했다. 스포츠마케팅학과는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e-스포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케팅 실무 능력을 키웠다.

2024년 하계방학 프로그램에는 더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건축공학과 등에서 총 2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콘텐츠 제작, AI 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도시 설계 등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경동대학교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현황]

운영연도	참여학과	주요활동 및 성과
2022년 (시범운영)	항공서비스학과, 호텔조리학과	항공사 비교 분석, 승무원 훈련 체험, 특급 호텔 외식 분야 탐색, 도시락 세트 제작 및 시음회
2023년	컴퓨터공학과, 유아교육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활용 프로젝트, 유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스포츠마케팅학과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e-스포츠 팬덤 활성화 방안
2024년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건축공학과	콘텐츠 제작, 스마트 개인비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e-스포츠 대학리그 마케팅,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 프로젝트

■ 운영성과

성과발표회를 통한 결과 공유와 긍정적인 평가

진로탐색학점제는 매 학기 종료 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동계방학 시범 운영의 성과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며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23년 하계와 동계 계절학기 성과발표회에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자신감 있게 발표하였다.

2024년 하계 성과발표회는 더욱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발표자 중 대상을 수상한 학생은 “진로탐색학점제를 통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학과 동기들과 협력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성과발표회는 학생들이 서로의 성취를 공유하고, 학습 동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동대학교,
진로탐색학점제로
학생들의
미래 설계 지원



▲ 2023년 진로탐색학점제 성과발표회(하계)



▲ 2023년 진로탐색학점제 성과발표회(동계)



▲ 2024년 진로탐색학점제 성과발표회(하계)

향후계획과 기대효과

경동대학교는 진로탐색학점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 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를 미리 파악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교육혁신처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로탐색학점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동대학교의 대표적인 교육 혁신 프로그램이다. 경동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을 쌓아,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동대학교는 진로탐색학점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자기주도 체험학습으로 전공과 진로에 더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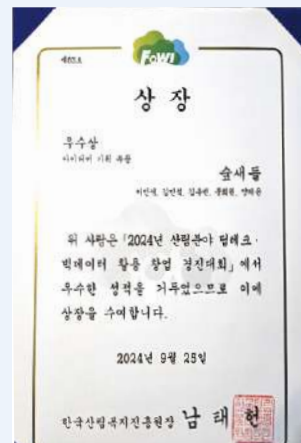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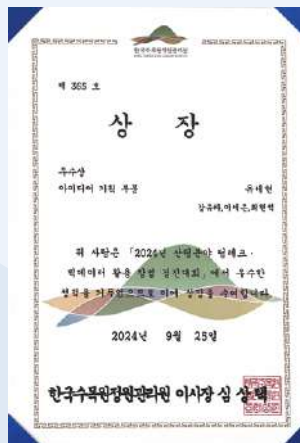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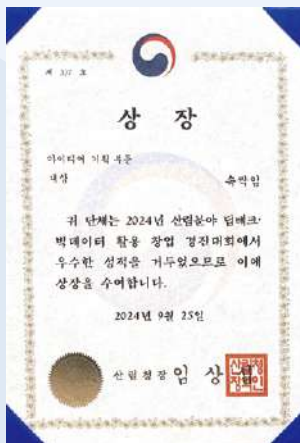


박지현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부교수

추진배경 및 목적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는 2020년부터 ‘숲에서 만나는 내일(Tomorrow & My Job)’을 모토로 신입생이 전공과목에 진입하기 전, 체험을 통해 전공을 경험하고 진로를 생각해 보는 “유레카프로젝트”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을 주요 진로로 준비하고 있지만, 창업이라는 신규 일자리 분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창업 및 취업의 핵심인 자기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산림환경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정부부처 등 대외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출품할 수 기회를 갖는 수업이다.



▲ 2024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 우수상 수상

‘2024년 산림분야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석권



▲ 2024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 우수상 수상

운영내용

- 1단계** : 학과 전공 관련 핵심 영역('23년 도시생태와 환경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탐구적인 학습 의지를 유도하기 위해 책임교수 및 외부전문가, 창업자의 멘토링 형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아이디어 발굴과 기획을 위한 영감을 얻도록 주요 정책방향과 최신기술 적용, 창업자의 창업 경험과 현장사례를 소개하며,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한다.
- 2단계** : 산림환경 분야 지식의 실제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한다. 지난 유레카프로젝트에서 나온 팀별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장단점을 토론하며 아이디어 구체화와 개선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한 팀의 팀장을 초청하여 관련 아이디어 및 입상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한, 팀별 아이디어와 관련된 현장, 창업자 사업장, 창업지원 기관 등에서 견학 및 실습을 통해 아이디어의 실제 활용을 경험해 본다.
- 3단계** : 실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을 위해 팀별 심화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단계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팀별로 조사 및 정리하고 교수 및 외부 전문가와 소통하여 아이디어를 개선하며 자기주도적 성과를 창출한다. 책임교수들은 수업시간 외에도 개별 학생팀과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팀별 맞춤형으로 아이디어 선정, 구체화, 고도화 작업을 지원한다.
- 4단계** : 교수진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평가와 자문을 통해 각 팀별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차기년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을 추천하여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운영성과

현재까지 본 학과 유레카프로젝트 학생팀들은 학습 결과물로 산림분야 빅데이터·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주최)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5년 연속 1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20년에는 정부부처 통합경진대회 산림분야 대표로 출전하여 과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국내외 경진대회와 공모전 참가 및 입상, 특허출원, 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유레카프로젝트는 아직 전공 과목에 입문하지 못한 1학년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수업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진도 다른 수업에 비해 고민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학생들은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해가 거듭할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구체화하는 능력과 팀 운영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유레카프로젝트의 성과를 통해 각종 외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와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통한 역량도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은 앞으로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학생들이 국내외 산림환경 분야를 이끌어가는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The collage displays student work and a project poster. It includes handwritten notes on various topics like '산림환경시스템' and '유레카프로젝트', a poster titled '삼산오오 유레카 1조 최종발표' with a silhouette of a person on a mountain, and a list of dates from 20201826 to 20201849.

▲ 피드백에 따른 학생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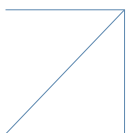
▲ 2024년 산림분야 딥테크·바이오테크 활용 창업 경진대회 대상 선정작
(2023 유레카프로젝트 학생팀, 2024.9.25. 시상식)

자기주도

체험학습으로

전공과 진로에

더 가까이



유레카프로젝트 활동 후기

“우리 팀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피드백을 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다음 회의를 이끌기 위해 각자가 노력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독특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팀이 어렵게 만든 성과물에 애정이 생기고, 더 좋은 성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팀원 모두가 프로젝트에 누구보다 열심히 임했으며, 각자의 역량이 고루 배치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산림, 환경, 교육 정책과 업무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차별성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다양한 의견과 각자의 동기 부여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결과를 도출한 성실한 조입니다. 2학기동안 모두 열정을 가지고 고생하며 테라리움이라는 생소한 개념에서 시작하여 앱을 구상하기까지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테라리움이라는 분야는 마이너한 분야여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워 구체화하기 힘들었지만, 서로 성실히 유레카프로젝트에 임하여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인공지능 시대 : 에듀테크로 수업을 혁신하다



이윤희

동서대학교
원격교육센터
연구원

추진배경 및 목적

동서대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달란트(Talents)를 발굴하고 'The Only One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형 대학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학습 환경과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AI와 VR 기술 등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감형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실감형 원격수업]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듀테크 기술 자문, 활용 교육, 수업 도구 지원뿐만 아니라 수업 운영 성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교수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학습경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원격수업 환경에서 강의의 몰입도와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AI를 비롯한 에듀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학습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학습자 개별 수준에 맞춘 적응형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면 수업으로도 확대 운영되고 있다.

운영내용

[실감형 원격수업]은 에듀테크 활용 집중 워크숍과 실감형 원격수업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에듀테크 활용 집중 워크숍은 교수자를 대상으로 에듀테크 기반의 프로그램과 기기 활용 방법을 익혀 수업 설계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연수 프로그램이다. 신기술에 대한 수요를 발굴해 메타버스, VR 콘텐츠, Chat GPT 등을 직접 체험하고 운용 방법을 익혀 교수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수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실감형 원격수업 지원은 에듀테크를 적용한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수업 종료 후에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실감형 원격수업 모형 개발 연구 과제를 통해 수업 유형을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수업, VR 활용 수업, 기타 원격 상호작용 방법으로 구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업 운영을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①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수업, ② 메타버스/VR 활용 수업, ③ 기타 에듀테크 활용 제안의 세 가지 유형으로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실감형 원격수업 유형



유형	내용
①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수업	Chat GPT 및 생성형 AI 도구 활용 수업 AI 튜터 및 유학생 AI 통·번역 활용 수업
② 메타버스 및 VR 활용 수업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수업 VR 콘텐츠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수업
③ 기타 에듀테크 활용 제안	A, B 유형 외 온라인 협업 도구 등 교수자가 제안하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그림 1. [실감형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



그림 2. 운영 지침서



[실감형 원격수업]은 동서대학교 교무처 교육혁신원 산하 원격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업공고 및 선정심사, 상용 플랫폼/툴킷 제공과 사용법 교육, 수업 운영 결과 관리와 성과 확산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성과분석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에 환류하고 있다. 또한, 수업 운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서를 제작하여 수업 운영 사례와 함께 실감형 원격수업의 설계 및 운영 준비방법을 교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 운영성과

시행 초기인 2022년에는 실감형 원격수업 지원 사업 참여가 저조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수업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약 40개의 교과목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실감형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호작용 도구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은 사업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꾸준히 늘고 추세이며, 실습이나 견학 등의 경험을 가상환경에서 체험하며 학습 효과성과 효율성, 특히 매력성과 학습몰입이 강화된 점이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에듀테크 도구를 수업에 도입하는 것을 넘어 가상환경이 아니면 어렵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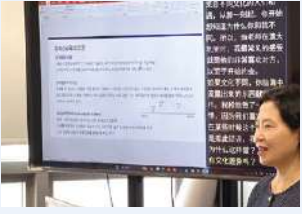
불가능했을 학습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촉진했다는 점은 실감형 원격수업 지원 사업의 성과로 손꼽을 수 있다.

[실감형 원격수업]의 수업 설계 및 교수자의 수업 운영 노력에 대해서 학습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에듀테크 도구를 수업에 도입했으나 학습목표를 위해 원활하게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학습자들의 평가가 있었다. 교수자들도 수업 준비 부담과 매체 활용 능력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며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2〉 실감형 원격교육 운영 교과목

	학부/학과	교과목명	내용		학부/학과	교과목명	내용
2022 년도 (5)	글로벌 비즈니스	호텔프로젝트실무	호텔프로젝트 디자인 설계에서 360° VR의 활용	2024 년도 (31)	디자인	UX디자인	실시간 통번역 AI 활용 외국인 유학생 대항 UX 디자인 논문지도
	디자인	몰입형미디어디자인 프로젝트	몰입형 미디어 디자인 PBL 수업		IC.	3D캐릭터디자인 및 제작	실시간 통번역 AI 활용 외국인 유학생 대상 3D 캐릭터 모델링 및 제작
	디자인	컴퓨터응용디자인2	공간 체험을 위한 VR활용 몰입형 수업		게임	프로그래밍입문	생성형 AI 활용 Python코드 생성 및 프로그래밍 실습
	바이오헬스 융합	통합시뮬레이션실습 1	VR을 활용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시뮬레이션 수업		교양	AI와함께하는수학	학습 난이도별 수학 문제은행 AI 활용 개인 맞춤형 문제해결
	게임	포트폴리오 제작	게더타운과 노션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과 포트폴리오 관리		교양	컴퓨터를만든수학	
2023 년도 (10)	간호	호스피스간호	VR 활용 호스피스 간호 시뮬레이션 수업		교양	빅데이터속의수학	
	간호	간호관리학	VR 활용 간호실무 수업		교양	창의적건축과디자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축 아이디어 시각화
	연기	창의적문화 콘텐츠기획	게더타운 활용 콘텐츠 창작 수업		교양	데이터과학	통계 프로그램(Orange3)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바이오헬스 융합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1	게더타운 활용 전공 수업		관광	스마트마이스	VR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이스 분야의 현장 및 실무 경험 제공
	바이오헬스 융합	건강보험이론 및 실무	게더타운 활용 전공수업		바이오헬스 융합	보건 의사소통	생성형 AI 활용 치과의료진의 의사소통 실무 경험
	바이오헬스 융합	의학용어	게더타운 활용 전공 수업		교양	AI와함께하는수학	학습 난이도별 수학 문제은행 AI 활용 개인 맞춤형 문제해결
	간호	간호학개론	VR 활용 간호실무 수업		교양	컴퓨터를만든수학	
	교양	컴퓨터를만든수학	학습 난이도별 수학 문제은행 AI 활용 개인 맞춤형 문제해결 수업		교양	빅데이터속의수학	
	IC.	Introduction to MediaArts	Midjourney활용 아이디어 시각화 프로젝트 수업		교양	창의적건축과 아이디어디자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축 아이디어 시각화
	IC.	Digital Publishing	Midjourney활용 아이디어 시각화 프로젝트 수업		교양	경제학의 이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제 기본개념 이해
					간호	통합시뮬레이션실습	VR 활용 간호상황분석 실무경험

〈표 3〉 실감형 원격교육 운영 사진

창의적건축과디자인 교양	▶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 건축디자인 프로토타입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건축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시각화함		
통합임상추론 간호학과, 전공수업	▶ 실제 임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사례를 해결함 ▶ 3D그래픽으로 표현된 Human AI 가상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생성함		
스마트마이스 관광학과, 전공수업	▶ 관광실무체험을 위한 최신 에듀테크 기술 활용 ▶ VR과 챗GPT를 활용하여 관광 실무 이해 증진		
실시간 통번역 AI 유학생 교육/ 비교과 수업 지원	▶ 유명 외국인사 특강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실시간 통번역 AI 지원		
교양수학 AI 문제은행 활용	▶ 학습 난이도별 수학 문제은행 AI 활용, 개인 맞춤형 문제해결 수업 운영		

향후계획

현재까지의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실감형 원격수업 운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내 타 교수법 프로그램과 에듀테크 활용 집중 워크숍을 연계하여 [실감형 원격수업]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며,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방법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글로벌 마케터 심화과정 우수 수료생, 홍콩 식품 박람회 참여



오채영/강윤경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교육센터
차장/과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과 산학협력교육센터가 주최한 '2024 글로벌 마케터 심화과정'이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중 하나로 해외 현장에서 한류를 전파할 글로벌 마케터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 교육하고, 다양한 실습을 병행하여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험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였으며, 앞서 지난 겨울에는 글로벌 마케터 비기너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산학협력교육센터는 숙명여대와 협업 중인 서울 먹거리창업센터의 입주 기업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시즌드시즌, 푸로운, 흥만소, 봉숙 4곳과 연계하여 마케팅 이론, 제품 교육, 실제 기업제품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실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마케팅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 특강으로 리테일 테크기업 쉐리 최재훈 부대표의 '식품 플랫폼 운영' 교육을 통해 유통 프로세스와 전략을 공부하고, 광고대행사 TBWA 김옥수 국장의 특강을 통해 효과적인 발표 기술을 배우며 마케팅 능력을 길렀다. 한편 7월 18일 열린 글로벌 마케팅 PT 결과발표회에서는 지난 한 달간 배운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업의 주력 상품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 방법을 발표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번 심화과정 17명의 수료자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된 8명은 대학혁신단과 LINC3.0 사업단의 '글로벌 마케터X지산학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홍콩 식품 박람회(HKTDC Food EXPO PRO 2024)에 직접 파견되어 해외 바이어 대상 실제 글로벌 마케팅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박람회는 홍콩 무역 발전국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B2B 대규모 국제 행사로써, 올해 한국을 포함해 일본, 태국, 멕시코 등 30개국 약 1,860개 기업이 참가하여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식품의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최적의 기회로, K-푸드 전문마케터로 성장하기 위한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각 기업별 통역을 수행하며 해외 바이어들에게 상품을 홍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푸드테크 분야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외 여러 식품을 체험하며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와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학습할 수 있었다.

글로컬 마케터
심화과정 진행 및
홍콩 푸드 엑스포 프로
2024 참여 사진



▲ 2024 글로컬 마케터 심화과정 진행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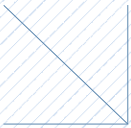
▲ 2024 글로컬 마케터 심화과정 발표 사진



▲ 2024 홍콩 푸드 엑스포 프로 2024 참여



글로벌 마케터
심화과정 우수 수료생,
홍콩 식품 박람회 참여



참가 학생들은 “외국에서 열리는 실제 박람회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매년 운영되는 본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마케팅 실전 경험을 쌓고, 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써 우리 대학과 서울시 산하 지역기업이 연계하는 지산학(地産學)협력 모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2024학년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활성화 성과공유 포럼



김수영

인천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추진배경 및 목적

- 인천가톨릭대학교와 전문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인천가톨릭대학교와 전문 학회 소속 발표자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제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지역사회기여사업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 사회사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성과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요

- 2024년 6월 28일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는 전문 학회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우수사례에 대한 개별 발표 및 상호 토론의 장을 개최하였다.

[발표 1] 의생명과학 시각화 콘텐츠를 통한 교육 창업생태계 구축

- ▶ 발표 : 윤관현(인천가톨릭대)
- ▶ 토론 : 김현(한양대), 최호진(단국대)
 - 바이오산업과 시각화 콘텐츠 제작 선도를 위한 산학연 연계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바이오 콘텐츠 시각화 인재의 취·창업 지원을 통한 정주형 일자리 창출 및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발표 2] 제물포 르네상스 산업 단지 재생센터 구상과 발전 방향

- ▶ 발표 : 신일기(인천가톨릭대)
- ▶ 토론 : 김천수(명지대), 신보현(광명문화재단)
 - 지역 기반 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산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창업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신산업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함.



【발표 3】 인천 보물섬프로젝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전략

- ▶ 발표 : 박영주(인천가톨릭대)
- ▶ 토론 : 이형민(성신여대), 박세진(한양대)
 - 다양한 매력 요소를 지녔지만 개발되지 않은 인천 도서 지역을 관광 Brand 화하여 인천만의 특화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주 인구의 확대를 유도함.



【발표 4】 인천 특화 문화예술 교육 방안

- ▶ 발표 : 정수경(인천가톨릭대)
- ▶ 토론 : 조준혁(서원대), 전보경(단국대)
 - 평생 교육 수요 급증에 따른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 정주형 창업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모색함.

2024학년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활성화 성과공유

포럼



추진성과

- 인천가톨릭대학교와 전문 학회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인천가톨릭대학교와 전문 학회 소속 발표자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제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지역사회기여사업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학과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학과주도형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 및 예산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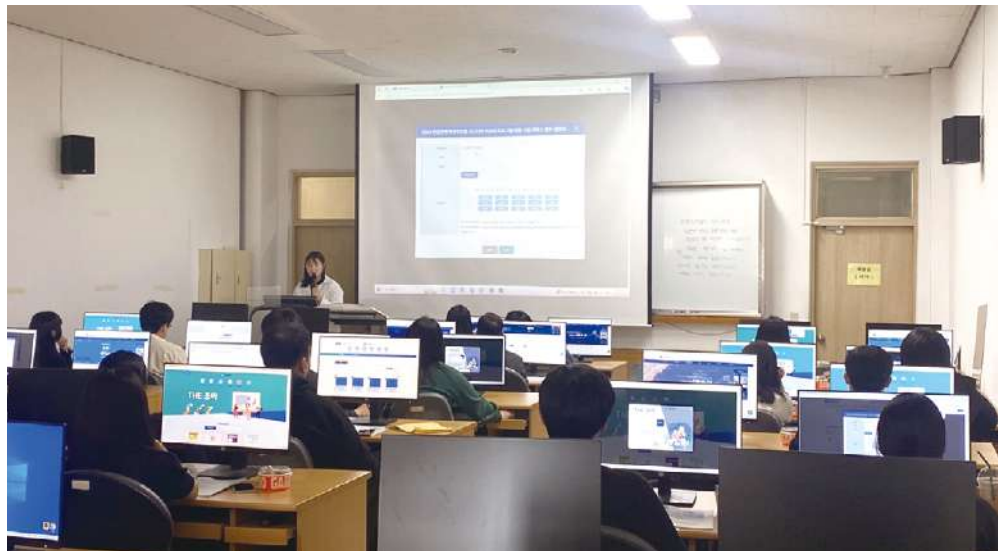


김도희

조선대학교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
직원

조선대학교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은 2024학년도 학과주도형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 배정 예산을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7% 확대하였다. 이는 학생 대상 2024학년도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년별, 전공계열별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중요도 인식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과주도형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과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전공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교원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 사업이다. 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와 소속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 등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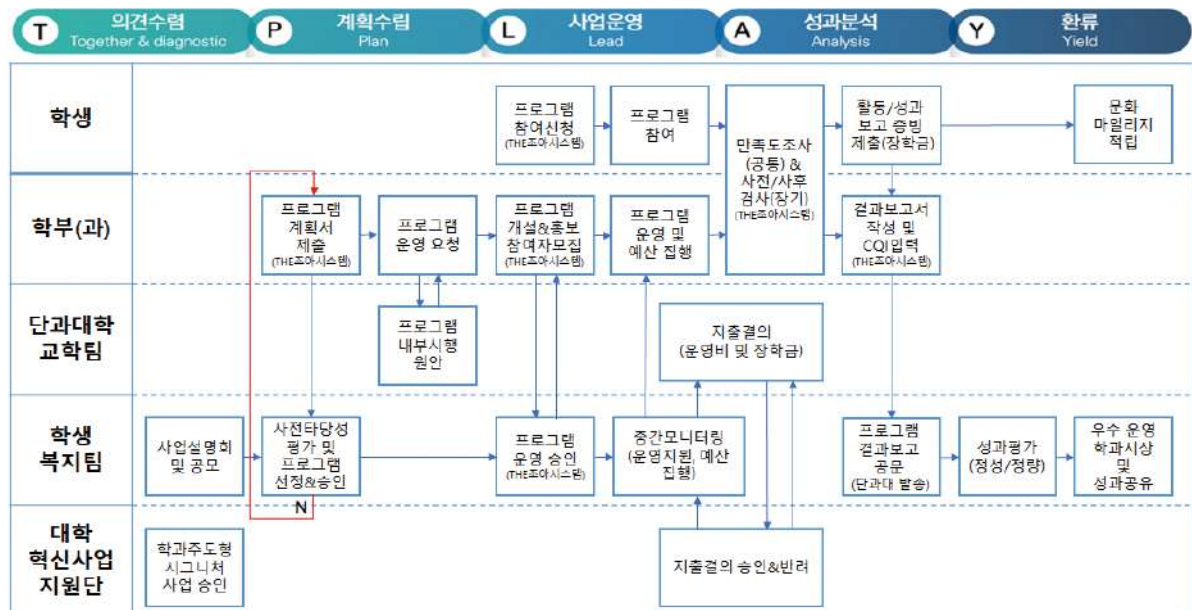


▲ 학과주도형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회 사진.
THE조아시스템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하여 사전타당성평가를 통해 학과단독 56개, 학과연합 8개로 총 64개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학과 및 단과대학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절차,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4학년도에는 데이터 기반 학생역량통합시스템(THE조아)이 새롭게 오픈됨에 따라 시스템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함께 진행하였다.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은 THE조아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중간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공유회를 통해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킬 기회를 가질 것이다.

2024 (전공연계) 학과주도형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절차



▲ 학과주도형 시그니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절차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도서관 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 통합형 ‘스마트 도서관통합시스템’ 구축



박지은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계장

추진배경 및 목적

차 의과학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및 연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기반의 대학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며 선진형 디지털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 통합형 디지털 시스템을 맞춤 개발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네트워크형 정보화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융복합적 학술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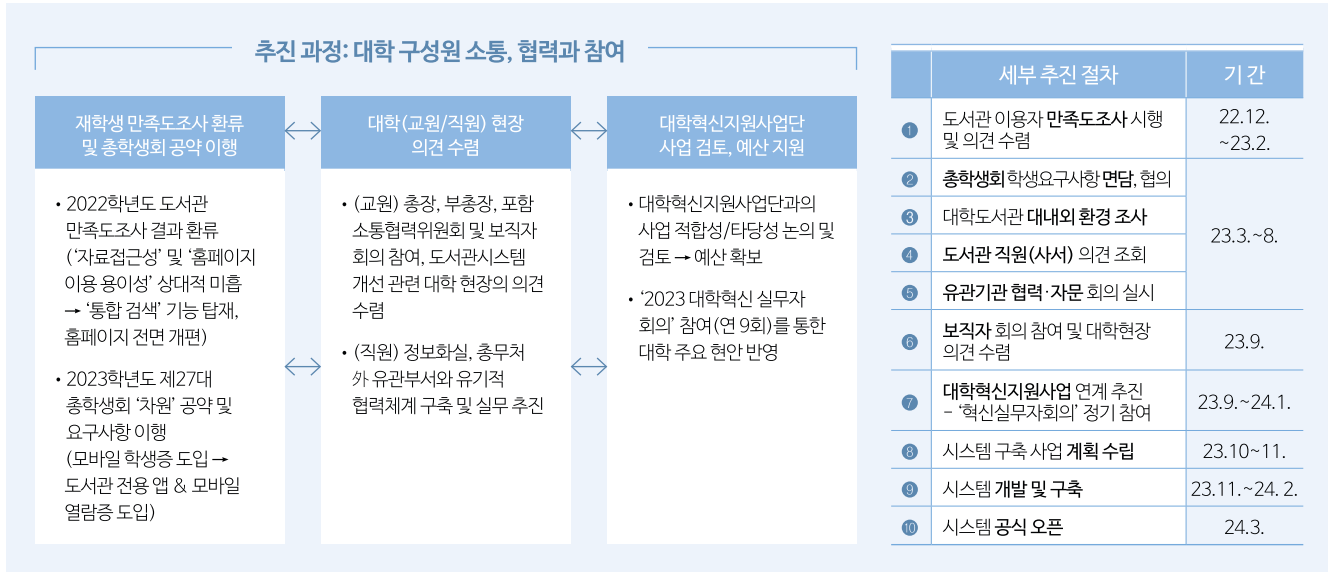


[그림1] 사업 추진배경 및 근거

사업 추진내용

지난 3월 정식 출시된 '스마트 도서관통합시스템'은 웹 기반의 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 통합형 관리 시스템으로, 도서관 관리 자원의 수집, 구축부터 접근, 탐색, 분석, 활용, 확산까지 도서관 운영 전반의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과 ICT 기반의 스마트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결합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표1] 사업 추진 과정



■ 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

2024년 3월, 도서관 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 통합형 '스마트 도서관통합시스템'이 정식 출시되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변화된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도서관 전용 모바일 앱(APP) 출시, ▲모바일 열람증 도입, ▲도서관 소장/미소장 자료 '통합검색', ▲3D 이미지 기반의 공간·시설·좌석 예약, ▲실시간 비대면 질의응답서비스 지원, ▲대학 포털 시스템 계정 및 데이터 연동(SSO), ▲온라인 이용자서비스 제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였던 공공·민간 도서관 위주의 보급형 시스템과 달리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연구지원 성격의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본교의 의과학 특성화 서비스를 구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4] '스마트 도서관통합시스템' 주요 기능





▲ 통합자료 검색

▲ 공간/시설/좌석 예약

▲ 온라인 이용서비스(교수/학습/연구)

또한 ‘스마트 도서관통합시스템’은 신규 구축 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괄목할 만한 정량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4학년도 상반기(24년 3월~8월)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횟수는 약 430,000회로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2) OPAC 검색 통계도 2배 가량 증가하였다. 3) 신규 도입한 도서관 전용 모바일 앱(APP) 역시 1,200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보이며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과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한 도서관 접근성 향상에 따라 정보자원(WebDB/전자저널/전자책(E-Book)) 및 시설자원(공간/시설/기자재)의 활용도 또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접수를 통한 정성적 측면의 만족도 성과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기능이 확실히 개선되었고 자료 검색 뿐만 아니라 구입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이용자 친화적 3D 이미지 기반의 예약 시스템 덕분에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예약하기 편리해졌다’ 등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 전반의 긍정적 의견을 확인하고 있으며, 2024년 도서관 만족도조사에서 ‘자료 접근성’, ‘홈페이지 용이성’ 등 기존 미흡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 지식정보·

인프라·서비스

통합형

‘스마트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본교 도서관은 ‘스마트 도서관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대학의 선진형 디지털 정보화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보화 시스템 및 환경이 대학의 교수·학습·연구 활동에 적극 활용되어 이용자의 만족과 열의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대학의 미래 교육 및 연구 혁신의 진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스마트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에 지속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대학의 학제 개편 및 학사 융합화 지원을 위한 학술정보큐레이션, 의과학 특성화 서비스 등 전공·주제별 융복합 학술서비스 접목을 고도화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통한 실감화, 지능화, 융합화되는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 환경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KBU 임팩트 봉사단’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수빈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
직원

추진배경 및 목적

- 한국성서대학교 지역사회임팩트센터는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인 ‘KBU 임팩트 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KBU 임팩트 봉사단’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외 봉사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실행하는 활동이며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실시하고 있다.
- ‘KBU 임팩트 봉사단’은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실행하여 희생적 봉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학교는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 ‘KBU 임팩트 봉사단’ 해외봉사팀 단체사진

프로그램 추진내용

- 2024 'KBU 임팩트 봉사단'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태국 치앙라이에 일주일간 머물며 현지 소수민족(카렌족, 아카족) 초·중고생 및 대학생 약 80명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 및 특화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2024 KBU 임팩트 봉사단	
활동 국가 및 장소	태국 치앙라이(Chiang Rai)
활동 일시	2024.8.5.(월) ~ 8.9.(금)
참여 학생	총 10명(성서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1명, 간호학과 6명)
수혜 대상	현지 소수민족(카렌족, 아카족) 초·중고생 및 대학생 약 80명
활동 기관 현황	Akha Heart Foundation(阿卡心基金會) - 위 기관은 현지 태국 카렌족 결혼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의 기숙사 생활과 학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특히 중국어 교육과 신학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태국 치앙라이 니란교회(Chiang Rai Eternal Life Church, 清萊永生教會) - 위 기관은 현지 태국인들을 중심으로 약 7년 동안 지속적인 중국어 교육 및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아동 및 청소년 80여명 대상) 태국 메사이 생명나무 신학교 - 위 기관은 현지 태국 아카족을 중심으로 신학교육을 하고 있음
활동 내용	교육 봉사: 한국어 및 중국어 교육 특화 봉사: 한국의 문화 및 전통 놀이 체험 / 환경, 외벽 도색 등
세부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어 매치 게임, 숫자 블록을 활용한 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며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함 한국 전통놀이 체험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놀이활동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함 한국 문화 교류 활동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국 음악을 접하게 하여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노래 가사를 통해 어휘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함 “아름다운 한글” 에코백 만들기(ESG) : 중·고생을 대상으로 에코백에 각자 한국어 이름 써보기 활동을 통해 본인의 이름이 한국어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하고 ESG와 연관지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활동을 진행함

▮ 프로그램 추진성과

- 2024 'KBU 임팩트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 현지 소수민족들에게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다방면으로 소통하려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의 다문화적 환경에서의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국가와 문화적 교류를 함으로써 문화 이해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 또한 개발되었다.
- 학교는 활동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를 형성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타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도 참여함으로써 본교 혁신사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KBU 임팩트 봉사단' 해외봉사 프로그램



▲ 'KBU 임팩트 봉사단' 해외봉사팀 활동사진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한국성서대학교
임팩트 봉사단
해외봉사



학생사례

Student case

KNU 창업사관학교 입교와 ANUWAVE로 창업하다



김나현

강남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

저는 2024학년도 강남대학교 창업지원팀에서 진행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KNU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강남대학교 창업지원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강좌 운영,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등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기획부터 시제품 개발이나 제품 설계, 마케팅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교내 창업동아리에서 헬스와 관련된 아이템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한계를 느껴 다음 학기에도 이와 같은 아이템으로 개발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창업동아리 활동과 달리 창업 아이템만을 개발하는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아이템은 좋으나 전문가 지도나 멘토링, IR(Investor Relations) 제작 등 외부 지원 없이 추진 하다 보면 아이템 개발에 있어서 한계를 경험한 경우 KNU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활동한 어뉴웨이브는 교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용인시 대학 연합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경영학부 김수아, 글로벌문화학부 이지연 학우와 함께 어뉴웨이브의 아이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KNU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 KNU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월례회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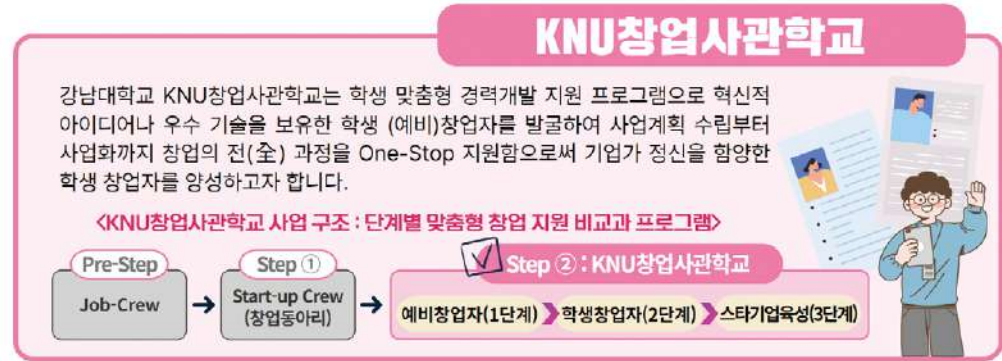


▲ 어뉴웨이브 (ANUWAVE) 활동

어뉴웨이브(ANUWAVE)는 버려지는 티셔츠를 재활용¹⁾하여 실로 생산하는 친환경 아이템입니다. 저는 KNU 창업사관학교 입교 전 이 아이디어로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어 아이템 연구에 몰두 중이었고 창업사관학교에 입교 후에는 연구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저희만의 사무실 공간과 지도교수 멘토링, 전문가 자문, 장학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어뉴웨이브(ANUWAVE)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구체적인 본격적인 브랜딩 후, 마케팅과 영업 그리고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전의 여타 환경 관련 기업들과는 다르게, 레트로퓨처리즘(retro-futurism, 복고미래주의)을 연상시키는 네온컬러와 MZ세대의 소비트렌트를 분석하여 어뉴웨이브(ANUWAVE)의 이름과 같이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시될 상품과 축제부스, 캠페인 장과 같은 곳에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활용을 젊은 세대를 넘어 다양한 계층의 세대에 전파하러 공익활동과 DIY키트를 활용한 강연 또한 준비하고 있어 하루빨리 저희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재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입니다. 물건을 처음 만들 때부터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며 쓸모가 없어진 후까지 고려하는 것, 물건을 가치 있게 오래 사용하도록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것 까지 -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출처: 서울재활용플라자 <http://www.seoulup.or.kr/>)



참여대상 및 지원혜택

구분	1단계 예비창업자	2단계 학생창업자	3단계 스타기업육성
개별조건	사업화가 필요한 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 패키지 사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지원과제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학생창업자 (기 창업자)	스타기업육성
참여혜택	- 이수자 대상 비교과 마일리지 500 마일리지 지급 - 매 학기 심사위원 평가 결과 “진급” 판정을 받은 기업(팀)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진급 기준은 100점 만점 85점 이상)		- 인프라 지원 - 본교 창업보육센터 내 기업입주공간 입주 자격 부여 -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무상 지원(최대 1년까지)
공통조건	- 본교 2~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1인 이상 팀 (휴·졸업생도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 불가) - 창업교과목 3학점 이상 기 수강자(팀 대표는 필수, 팀원은 선택) - 입교기업(팀) 지원은 1인 이상으로 1인 신청자도 1인 기업(팀)으로 인정		
비 고	- 학적 변동(휴학, 제적, 졸업) 시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 불가 - 예비창업자 : KNU 창업사관학교 1단계로 입교 - 초기창업자 : KNU 창업사관학교 2단계로 입교		

KNU 창업사관학교 입교와 ANUWAVE로 창업하다



창업 사관학교

모집

2024년
9월 22일
모집 마감!

창업지원팀
031-283-6180

강남대학교
KANONAM UNIVERSITY

**대학혁신
지원사업**

창업사관학교 안 내

"창업사관학교는 뭐하는 곳?"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의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학지원비 / 멘토링 / 네트워킹 / 장학금 / 창업공간임주 등 혜택!

창업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수여한 2~4학년
재학생이라면 창업사관학교 도전 가능!

접수일정 2024.09.02 (월) ~ 2024.09.22 (목) 자정까지

모집인원 총 2개 기입 11인 기입 참여 가능
*창업지원비 예산/명당 내 조항 가능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준비단계 학생(팀)
*대학금, 조교사기, 졸업후보자 등으로 참여 가능하나 최대 1명만 가능함

참여조건

- 본교 2~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1인 이상 팀
- *유·출발선도 프로그램 참여한 기원이나 장학금 참여해야 지원 불가
- 창업교과목 3학점 이상 수강사(팀장 필수, 팀원 선택)
- 입교기입(팀) 인원수는 1인 이상으로 구성
- *1인 신청자로 1인 기입(개인)으로 가능

활동기간 2024.09.02 (월) ~ 2025.02.28 (금)까지

선발날표 2024.09.27 (금)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2024.10.30 (월) 오리엔테이션 진행

참여혜택

1. 이수자 대상 비교과 미일리지 600마일리지 지급
2. 성과 결과 '진급' 반영받은 기업(팀) 100만원 지급

**KNU창업
사관학교
활동내용**

- *매월 최소 2회 이상 멘토링(지도교수 or 외부멘토) 진행
- *매월 최소 2회 이상 웰레활동 진행
(팀별 회의, 전체 회의 각각 1회 이상 필수)
- *매월 활동 중반 서류 작성 및 제출
- *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

KNU
대학혁신
지원사업

창업사관학교 모집중

2024년 9월 22일 모집 마감!

상세모집요강 필수!

문의사항: 강남대학교 창업지원팀
anogam@kengnam.ac.kr 031-283-6180

학생사례

Student case

알파 프로젝트 : 교내 교직원을 위한 근골격계 운동캠프 및 효과 검증



박효원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학생

추진배경 및 목적

저희는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와 스포츠의학동아리 '코어'에 소속된 학생들로 운동 재활에 관심과 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대에 입학한 이후로 매년 교직원을 위한 운동재활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주임 교수님이신 전지현 교수님의 추천으로 알파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고 “교내 교직원을 위한 근골격계 운동캠프 및 효과 검증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운동 효과의 비교”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평소 근골격계 통증을 가진 교직원분들이 통증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의 운동으로 완회시키는 것과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운영내용

팀 구성 : 저희는 모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학생이며 박효원(팀장, 3학년), 이상경(4학년), 박상준(3학년), 정재탁(3학년), 서지민(2학년), 윤소희(2학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전지현 교수님께서 담당해주셨습니다.

준비 :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교직원 분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통증인 목통증을 주제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갔습니다. 운동 참여율을 높이고, 편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동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교직원분들의 참여였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하여 국민대의 학과 사무실과 행정 부서를 방문하여 나눠드렸고 감사하게도 총 12분이 함께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진행 : 운동 프로그램은 목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거북목, 라운드숄더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RISS에서 turtled neck syndrome, FHD, rounded shoulder

exercise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총 48편의 논문을 검토한 후 제작하였습니다. 사각근, 상부승 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거북목 증상 완화를 위한 근력 강화 운동은 처음에는 맨몸과 폼롤러, 세라밴드만을 이용하여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4주차 이후에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 덤벨과 고강도의 운동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운동 진행의 전중후에는 교직원분들의 현재 목상태를 알 수 있는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위해 측정하였으며 통증(VAS), 목기능장애(NDI), 경추가동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운동은 총 16회(8주, 주2회, 60분)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팀은 사전에 폼롤러, 세라밴드, 미밴드를 제공하였으며 네이버 밴드 '리해비'를 통해 운동을 시청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운동에 대한 인증은 미밴드의 운동기록을 카카오톡 '리해비'에 보내는 것으로 하였고, 이를 확인하며 운동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은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평가를 위해 오프라인팀은 대면으로 미래관 120호(무용실)에서 운동을 진행하였고 월-금 아침(8-9시), 점심(12-13시) 중 편하신 시간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리해비



▲ 모집을 위해 제작한 리플렛 및 사용 로고

알파 프로젝트 활동 후기

총 15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길지만 짧은 15주 동안 목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북목과 라운드숄더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며 재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목통증을 주로 생각할지, 가동범위의 증가를 주로 생각할지 등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한 후 주차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며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모집할지,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해 많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접 리플렛을 들고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도 하고, 구글 설문지를 사용해 대상자분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리플렛을 가지고 각 학과 사무실에 직접 홍보를 하러 갔던 방법은 초반에 대상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신청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했는데, 리플렛에 있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교직원 분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에 참여 흥미 및 필요성을 높여 총 11분들의 대상자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주차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을 당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재활캠프와 연구의 사이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며 재활캠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해 방향성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상 교직원분들에게 재활캠프로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드린 것 같아 초반의 계획과는 차이가 생겼지만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과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알파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 모두 앞으로의 발전에 단단한 발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알파 프로젝트 : 교내 교직원을 위한 근골격계 운동캠프 및 효과 검증



▲ 오프라인 운동 진행

학생사례

Student case

혁신의 ‘大’로를 걷다 : 나의 대학혁신 이야기



오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부(중국어전공)
졸업생

■ 경험과 성장을 위한 서포터즈 활동의 의미

제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에 지원한 이유는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접할 때마다 배울 점이 많다고 믿으며,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둘째,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참여 절차가 복잡해 보여 망설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에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대외활동과 교내 경험을 통해 그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 부족한 점을 깨닫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경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저희 권역 내 대학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리고,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기를 포함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카드뉴스

부산외대 PSC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산외국어대학교의 PSC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제가 재학 시절 가장 많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PSC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정해진 커리큘럼을 넘어 자율적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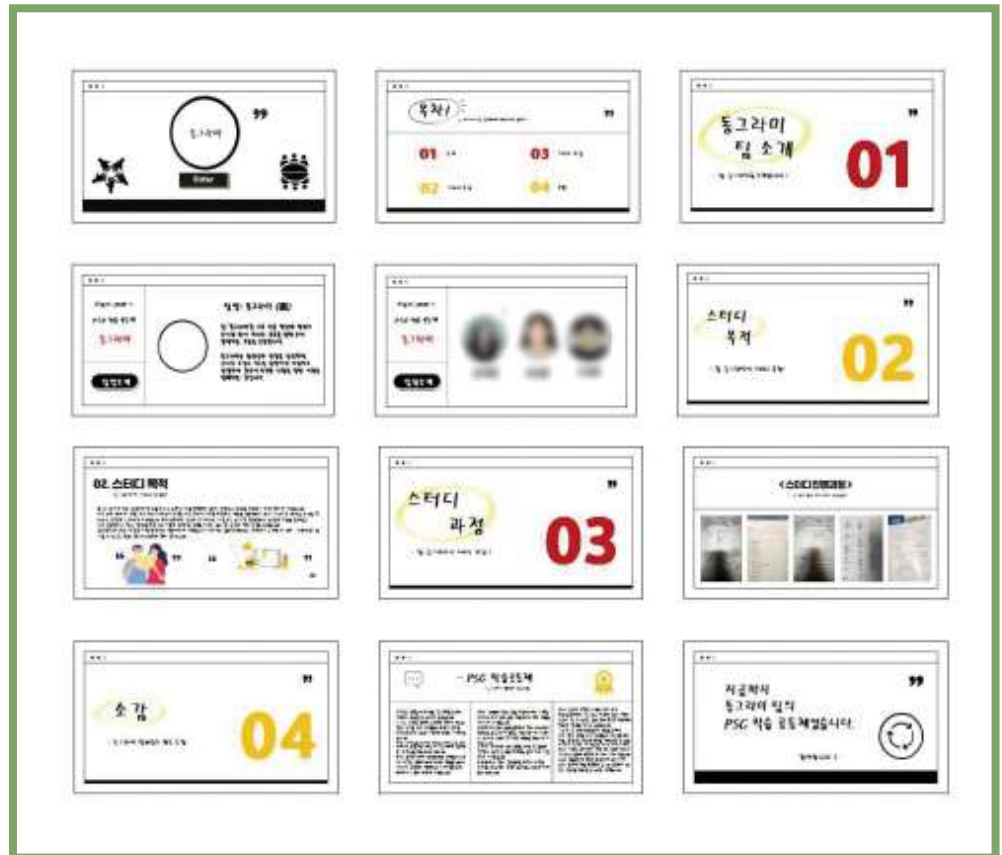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문제 탐색과 해결(Problem Finding/Solving), 자기 주도적 학습(Self-Learning), 그리고 협업과 교류(Collaboration)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개발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자율적인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습 공동체 간의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과 교류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학습의 폭을 넓힙니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자격증 분야의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올해는 중국어 자격증인 HSK 시험 준비를 위해 참가했습니다. PSC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며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PSC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 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경험이 제 자신을 한층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HSK 6급 준비 과정에서 저희 팀은 정기적인 모의 시험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학습 방법과 시간 관리 기술을 익힐 수 있었으며, 결국 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제 개인적인 성장과 학문적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 커리어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앞으로의 학습과 직업적 도전에 대한 준비를 더 탄탄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혁신의 '大'로를 걷다: 나의 대학혁신 이야기



▲ PSC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결과보고 PPT

마지막으로...

부산외대에는 PSC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대학혁신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후배들에게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 학문적 및 직업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양한 혁신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랍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



임희연

삼육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
학생

전공연계봉사클럽

삼육대학교는 지역사회연계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봉사자 양성을 위해 전공을 활용한 학생주도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연계봉사클럽은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모임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전공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여러 봉사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화학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론을 다루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실험을 진행하는 활동을 전공연계봉사클럽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본적인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등학생들의 사고를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토의 주제도 선정하였다. 전공연계 봉사 프로그램 준비가 나에게도 이론적 지식을 확장하고, 실험 지식과 기술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실험은 고등학생들이 최대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 유익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이론과 실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PPT와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특히, 실험에서 쓰이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화학개념들도 함께 준비하였다.

학년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았기에 학생들의 화학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의 예상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미리 답변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기화학, 분석화학, 표면화학 등 전공에서 배운 개념과 내용이 안착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고, 지식의 깊이가 깊어졌다.

또한, 복잡한 이론을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론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였지만, 실험 후 개선된 결과와 이론을 연관 지어 설명해 주고, 여러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서서히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23-1 전공연계봉사클럽

04.쏘이케미



봉사클럽 '쏘이케미'팀은 화학생명과학과 전공연계봉사클럽 팀으로, 최종완 지도교수님을 필두로 임희연 학생대표 외 12명의 화학생명과학과 학생이 전공연계 봉사를 위해 모여 2023년 1학기에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내용

삼육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공연계클럽 '쏘이케미'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학의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실 유의사항과 다양한 실험 기구들, 시약들을 공부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023-1 전공연계봉사클럽 활동 카드뉴스 중 쏘이케미 소개 내용



고등학생! 대학생!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

전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작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4번의 학기 동안 학생대표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학생대표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팀워크의 협력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다보니 안전과 원활한 진행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봉사클럽의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도울 수 있어야 했다.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며 학생대표로서 책임을 다한 시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능력과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이 활동은 단순한 실험 지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였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가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전공연계봉사클럽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이자, 본인의 전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송원대학교 성인학습자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봉사역량강화



박현균

송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추진배경

송원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은 평생학습자의 다양한 활동 수요에 맞춰 방학 기간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역량 강화 및 폭 넓은 대학 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국토탐방을 통한 역사 인식 함양 및 자기 주도성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추진내용

[프로그램명]

국토탐방을 통한 역사 인식 함양 및 자기 주도성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일	정	2024. 8. 21.(수) ~ 8. 25.(일), (4박 5일)
장	소	중국(백두산, 통화, 집안, 환인, 단동, 대련)
대	상	송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평생학습자 15명
진행내용		우리 민족의 국토 역사의 함양 위한 백두산 탐방, 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릉, 장군총, 오희분오호묘, 환도산성, 국내성, 오녀산성, 졸본성 등 고구려 유적지 탐방을 통한 역사 인식 함양

송원국토순례단이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지 역사탐방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정병천지를 바로 눈앞에서 보니 그런 생각은 사라진지 오래였습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담긴 집안으로 이동하여 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릉을 탐방하고, 장수왕릉, 장군총 7층 피라미드 석탑까지 탐방하였습니다.



▲ 고구려 유적지 장군총 탐방

역사학에서만 공부했던 곳을 직접 밟아보고 눈으로 담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과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이 생기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단동에서 바로 손 닿을 것 같은 거리에 북한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강 하나 사이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조상) 동포들을 현장에서 보고 느낀점과 감정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국토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 간 협동정신과 자립심을 키우고 민족정신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졸업 후에도 국토순례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송원대학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이진희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추진배경

송원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은 지역대학 간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의 혁신 시너지 향상 및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사회를 탐방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도전 정신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 대학 간 공유 협력(송원대, 호남대, 남부대) 세계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추진내용

[프로그램명]

2024 대학 간 공유 협력(송원대, 호남대, 남부대) 세계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일 정	2024. 6. 26.(월) ~ 7. 4.(목), (6박 9일)
장 소	말레이시아(말라카, 조호르바루), 싱가포르
대 상	송원대학교 재학생 22명
진행내용	팀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문화 및 역사 탐방, 국립대학 방문 및 학생, 교수 인터뷰, 전공 연계프로그램 참여 및 장소 탐방, 공통, 학교별 미션 및 과제 수행

6월 26일 ~ 7월 4일 세계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대학인 MMU를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에게 인터뷰, 설문조사하며 현지인들이 말레이시아의 의료체계, 보험, 복지 혜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 과제 수행을 위하여 '디어바바노냐'를 방문하기 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하는 '디어바

바노냐 전시'를 사전답사 하였습니다. 바바노냐의 바바는 남성, 노냐는 여성을 뜻하는데 중국인 남성과 말레이시아인 여성이 결혼하여 낳은 성별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바바노냐 가족들이 거주했던 공간을 박물관으로 활용한지라 생활 흔적이 남아있었고 다양한 중국, 말레이시아의 혼합 문화를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서로 다른 인종, 언어, 문화에 대한 낯섦이 있음에도 어색함 없이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US 학교를 방문했을때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전조사를 했던 만큼 깨끗하고 거리에 쓰레기 하나 보기힘든 나라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싱가포르의 친환경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들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인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국제적인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많은 해외 간호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큰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싱가포르 간호사의 급여가 한국보다 높은 편이며, 의료보험, 주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해외 간호사로 일하기 위하여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 세계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은 저에게 단순한 해외 경험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해외 간호사라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 싱가포르 현지 대학 방문(NUS 대학)

학생사례

Student case

RC융합대학: 2024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며 베리타스하우스 RA를 인터뷰하다



김단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국제관계학전공
재학생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RC 프로그램: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이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관을 단순한 거주공간에서 생활체험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주간 학습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체제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RC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RC 하우스'가 있다. 각 하우스는 200~35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며, 마스터 교수와 RA(Residential Assistant) 선배들이 함께 생활하며 학생들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은 각 하우스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베리타스하우스 RA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학기 초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RA들의 소감을 들어보기 위해 대표 RA인 장○훈 학생을 만났다.

장○훈 RA는 “처음 맡은 대표 역할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학기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교수님, 친구들, 동생들과 함께한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라며, RA 활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후회 없는 대학생살을 보장할 테니 꼭 지원해보세요”라고 조언했다.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 1학년 학생들을 위한 1:1 상담이 있다. 이를 통해 RA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의 고민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RC 프로그램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봉사활동으로 연세정신을 함양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창의적 활동으로 자기주도 역량과 창의지성을 배양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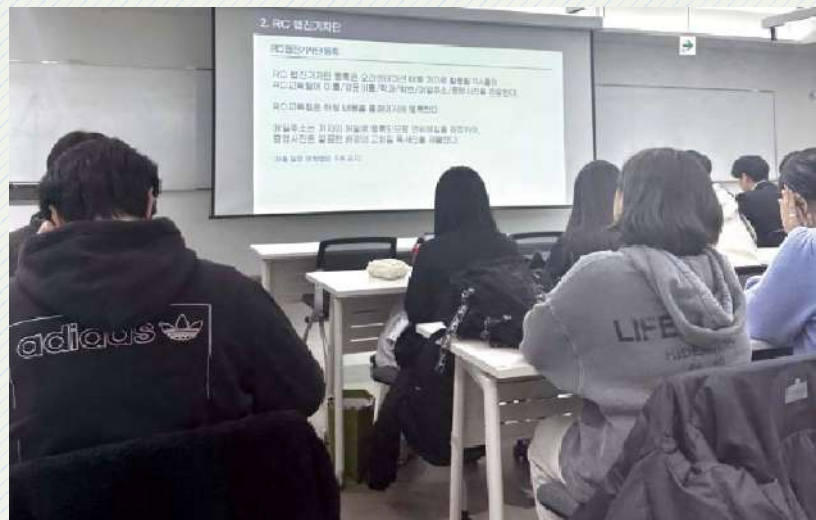
RC 프로그램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받는 RA

RC 프로그램의 핵심: 1:1 상담과 분반모임

베리타스하우스 RA들의 활동 중 돋보이는 것은 1:1 상담과 분반모임이다. 금O제 RA는 상담의 효과에 대해 “학생들의 고민 해결은 물론, 친밀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 성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분반모임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RA들의 주요 업무인 분반모임은 매주 수요일 50분간 열린다. 각 RA는 매주 담당 RC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분반 모임은 ‘룸메이트 서약서 작성’, ‘한 학기 버킷리스트’, ‘학교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은 RC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RC융합대학:
2024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며
베리타스하우스 RA를
인터뷰하다



▲ 베린이 나들이 행사

RC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 합동 분반모임

베리타스하우스는 남녀 합동 분반모임을 실시해 많은 RC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베리타스하우스에서 시도한 5분반과 9분반의 합동 분반모임이 큰 호응을 얻었다. 양○웅 RA는 “하우스 내 다른 분반 학생들과 폭넓게 친해질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며, “예상보다 분위기와 만족도가 높았고, 원활히 진행돼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린 RA 역시 “RC 학생들로부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들어 성공적이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나 여러 변수에 대해 우려했지만, RC 학생들이 서로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며 “하우스별 분반모임과는 다른 색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치회 RA의 경험: 협력과 성장의 시간

김○재 RA는 자치회 RA로서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그는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성취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RC 학생들과의 행사 기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느꼈다고 한다. “RC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열심히 임하는 모습에 고맙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하우스 프로그램 ‘베린이 나들이’를 가장 큰 활동으로 꼽았다. 그는 “자치회 RC 학생들이 하우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돋아 준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와 보람을 표현했다.

RC 프로그램의 미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RC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RA들과 RC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앞으로 RC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인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INNO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경험



김다혜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INNO모니터링단
학생

평소 블로그, SNS 운영, 디지털 콘텐츠 편집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개인적인 흥미와 역량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고, INNO 모니터링단 활동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해 주저 없이 모니터링단 활동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학혁신사업단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첫 미팅에서부터 카드뉴스와 웹 소식지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며,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소개하고 그 활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저와 같은 참여자들은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편집 과정을 영상 자료로 제공해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였고, 톨 사용 중 발생하는 질문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 작업에 막힘이 없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원은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모니터링단 학생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서는 콘텐츠 기획 및 시각적 디자인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내용 전개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이는 콘텐츠 기획 능력과 논리적 전개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폰트를 시도하고, 적절한 이미지와 아이콘을 사용하여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콘텐츠의 규격과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카드뉴스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제작한 카드뉴스가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SNS 및 블로그에 게시되어 다수의 학생들과 공유된 것은 저에게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혁신사업단의
 전반적인 지원은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모니터링단 학생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 모니터링단 카드뉴스 교육 현장

영상 제작에서도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기 위해 자막 속도, 화면 전환 효과, 음악 배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하며 영상 콘텐츠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대학혁신사업단이 제공한 지원을 통해 영상 편집 툴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창의적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배경음악과 다양한 시각적 효과가 포함된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했고, 최종 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은 대학혁신사업단의 교육적 지원이 이끌어낸 성과임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숏폼 콘텐츠의 트렌드 속에서 편집 기술은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숏츠(Shorts), 릴스(Reels)와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서, 이러한 편집 역량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대학혁신사업단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저는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콘텐츠 기획 능력, 편집 기술 향상,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혁신사업단이 제공한 기초와 교육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콘텐츠 제작에 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INNO 모니터링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서는
콘텐츠 기획 및
시각적 디자인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카드뉴스 교육 내용

INNO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경험



▲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인스타그램

학생사례

Student case

글로벌 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경험 (인도네시아 해외연수의 교훈)



서영서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024학년도 간호학과 지역정주형 교육과정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세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예사웅굴 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주된 이유는 간호사로서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다문화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외연수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Citra Alam Riverside’에서 인도네시아 문화체험



▲ 에사웅굴 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

연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와 일상 생활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악기와 춤, 이슬람 종교체험, 전통 염색기법,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에사웅굴 대학교’에서 암세포 관찰 및 암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암 중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의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언어를 직접 배울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배경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다문화 환경에서의 간호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도 친구들은 인도의 노래를 준비하였고, 필리핀 친구들은 필리핀 전통춤,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인도네시아의 전통춤을 준비하였으며, 저희는 한국의 음식인 떡볶이와 오미자차를 준비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친구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떡볶이와 오미자차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주종교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와 간호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슬람의 금식 기간 동안에는 환자의 식이 요법과 약물 복용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체험하면서, 종교적 신념이 간호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 동안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와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적 조절을 넘어,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금식 기간 동안의 적절한 관리와 지원은 환자의 신뢰를 얻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간호사는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고 환자의 종교적 요구를 이해하며 이를 반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이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하면서, 전통적인 치료법이나 의식이 현대 의학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법이 현대 의학과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제가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다문화적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간호사로서 문화적 이해와 종교적 민감성을 더욱 심화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식이 제한이나 치료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신념을 존중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간호사의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간호 과정에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다문화적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훈련은 다문화 사회에서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향후 학습과 실무에서 이러한 점들을 더욱 강화하여,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는 제 간호사로서의 경로에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더 나은 간호 실무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간호사가 되어, 모든 환자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간호 실무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민감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 경험
(인도네시아
해외연수의 교훈)



▲ 에사웅굴 대학교 Bekasi Campus

학생사례

Student case

돌아온 학교에서 만난 보석 같은 순간: 비교과프로그램이 선물한 추억



황인준

한국의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서아프리카어전공
학생

직장 생활을 잠시 멈추고 졸업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캠퍼스에 발을 들이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코딩이 어느샌가 학생들의 필수 교양 과목이 되어있었고, 모두가 노트북을 들고 열심히 프로그래밍하고 있었다. 문득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퇴근 후에도 남아 엑셀을 공부하던 담임선생님의 모습이 선명했다. 당시엔 '내가 방과 후 수업에서 배우는 엑셀을 어른인 선생님도 배우시네'라고 단순히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기술이 날로 발전했고 이제는 내가 그 선생님의 상황이 된 것 같았다. 돌이켜 보니 당시 선생님은 새로운 기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현상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부하셨다. 그 모습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배우고는 싶었고 관심은 있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코딩을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학교 커뮤니티에서 '2024년 대학-지역사회 연계 K-HTML 해커톤 대회'에 참가할 팀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다. 이 대회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용인특례시 관내 6개 대학교 학생이 참가 대상이 되었다. 참가한 팀들은 용인특례시가 제시하는 지역사회 요구 및 문제해결 관련 주제에 따라 AI 기반 웹/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제 막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지원하였고 걱정과 달리 팀원들은 나를 환대해 주었다.

우리는 용인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비대면으로 한 번, 대면으로 한 번 만났다. 비대면 회의에서는 팀원 각자 용인시가 가진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조사를 공유하였다. 용인시의 전체 면적에 비해 현저히 적은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용인시의 높은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용인시의 노인 수 증가로 인한 의료 공백과 노인 사회의 단절을 막고 사회와의 소통을 유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다. 대면 회의를 통해서도 용인시의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 문제인 사회 단절, 건강,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성형 AI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수렴하였다. 대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같은 개발팀이었던 팀원은 대회 시작하기 전까지 남은 3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어 내가 대회에서 하여야 하는 역할에 관해 설명을 해주었고 직접 실습해 보라며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일부를 공유해주기도 하였다.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대외 활동에 도전한 나는 처음 접해본 분야에 동굴 속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나를 위해 기꺼이 멘토가 되어주었다. 팀원의 도움의 손길은 빛이 되어주었고 나는 조금씩 코딩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대회 날이 되고 우리는 준비해 왔던 기획과 개발을 진행하였다. 기획 및 디자인과 개발 간에 소통하며 중간중간에 유기적으로 변경했다.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의 개발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기획한대로 구현해 낼 수 있을 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는 기존 생형형 AI 앱이 노인의 생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을 넘어 건강과 정서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단순 돌봄을 넘어 노인과 매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력로봇을 만들고자 하였다. 사용 대상자의 요구에 맞춰서는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분석·파악하여 건강을 챙겨주는 의사나, 대화가 마냥 즐거운 경로당 친구 혹은 똑부러지는 손녀딸과 같은 역할을 부여했다. 이러한 3가지 버전의 AI를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였다.

멘토님의

중간점검 시간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었다



점심 저녁을 먹고 새벽이 되어서도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대강당실은 은은한 카페 음악과 함께 각자 팀에서부터 들리는 열띤 회의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열중하는 가운데 우리 팀이 있었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 나를 개발에 더욱 집중하게 했다.



- 완벽한 발표로 인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의도가
확실히 전달되었다



우리 팀은 첫날에 3시간 채 잠에 들지 못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테지만 바로 옆에는 팀원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과 기획, 발표를 맡은 팀원의 깔끔하고 설득력 있는 발표로 그간의 노력을 한 번에 보상 받는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개발하던 중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원장님이 방문해 응원을 해주셨고 담당 선생님께서는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점이 없는지 항상 여쭙보시며 우리가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다. 원장님께서도 우리 팀원들의 전공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한 전공이 없어 흥미를 느끼셨다고 했다.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의 전공은 제각기 달랐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관심사 하나로 팀을 이루어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이 우리가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교과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학교라는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학생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취지에 관심이 간다면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이라는 관심사만으로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각 2명으로 총 4명의 팀원이 구성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교과프로그램에 내가 용기를 조금만 덜 댔더라면, 이렇게 좋은 팀원들과 경험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아찔한 생각도 든다.



돌아온

학교에서 만난

보석 같은 순간:

비교과프로그램이

선물한 추억

이 과정을 함께 겪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해결해용' 팀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따뜻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교육혁신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이 뜻깊은 대회를 주최해 주신 용인특례시와 경희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새벽 세 시에도, 네 시에도 우리 팀원들의 지친 눈가에 맺힌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해맑고 이뻐다.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미소 속에 격려가 담겼고, 그 미소와 함께 우리가 주문처럼 외치고 긍정의 힘이 솟았던 말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어쨌든 돌아가잖아! 한잔 해!’



▲ 단체사진



▲ 등록 데스크 운영



▲ 개회사_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



▲ 축사_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개회사_ 남기석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회장



▲ 축사영상_ 김대식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2024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정책포럼

패널
토의



▲ 패널토의



▲ 패널토의_김석수 부산대학교 교수,
前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



▲ 패널토의_김영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



▲ 패널토의_홍석민 한림대학교 기획처장,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



▲ 패널토의_성오현 대경대학교 부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처장협의회장



▲ 일반대학 발제_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22호 게재 원고 모집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22호(12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 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COVID-19 환경 하의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 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 고 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아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 안내

원고응모대상

- ▶ 대학혁신지원사업 117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 ▶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원고분량

- ▶ A4 최대 2매 이내로 제한

행정사항

- 제출자료 :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 제출기한 : 2024. 11. 15.(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 uispc@pusan.ac.kr)
- 유의사항 :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 문 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051)510-7905/7949

